

중동의 모래바람 속, 눈을 뜨다.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을 읽고-

경영학과 200920705 전세훈

1. 이슬람에 대한 예민한 반응

- ① “미쳤냐. 테러단체 키우는 건물을 재건축 허가해주게.”
- ② “이슬람은 너무 잔인하다. 절대 반대이다. 이들이 한반도에 더 이상 들어오게 방치해선 안된다. 서방국가들이 지금 제일 골치아파 하는 테러의 배후엔 거의 이들이 있다. 정책하는 인간들은 심사숙고해라!”
- ③ “모든 이슬람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이슬람입니다.”
- ④ “종교를 받아들일때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종교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이슬람교에는 과격한 테러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종파가 많고 이슬람교는 일단 다수 종교가 되면 다른 종교를 금지하고 탄압하며 여자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등 민주주의 원칙과는 위배되는 성향이 크다. 공짜라고 이슬람사원을 개축하여 포교를 이롭게 하는 것은 공짜라고 독배를 받아 마시는 것과 같다.”
- ⑤ “난 어떠한 종교도 안믿는 무신론자지만.. 이슬람교 사원이 저렇게 크게 지어진다고 하니 웬지 찜찜하네.. 그 어떠한 종교보다도 극단적 원리주의에 집착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지 않나?? 종교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비이슬람국가와 신도에 대한 테러를 많은 무슬림들이 심적으로는 지지한다고 한다.. 이런 무서운 애들을 허용해야 하나??”

위는 2015 년 4 월 4 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태원 이슬람사원, 터키가 새로 짓는다>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 중 찬성이 두 배 이상 많은 댓글 일부를 추린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국내 무슬림 인구의 증가로 비좁아진 이태원의 한국 이슬람교 서울 중앙성원을 터키 정부의 지원으로 새롭게 건축한다는 것이다. 김군의 IS 가담 사건이 터진 지 두 달 남짓 지난 상황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반응은 위와 같이 예민했다.

하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예민함을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나 커 보인다. 어쩌면 댓글들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 부정적인 감정은 대체로 이슬람에 대한 공포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공포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다. 이성의 이전에 놓인 타자(他者)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다. 이성 이전의 공포, 그것이 지금 이렇게 독후감을 쓰는데 의미를 주는 핵심 논지이다.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은 그런 우리의 반응과 생각들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2. 공포는 무지에 기인한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진을 찍는 것이 혼을 뺏기는 일이라며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같은 이야기로 내리는 비나 천둥이 신의 심판이라며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카메라를 처음 보는 사람이나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그것들은 더할 나위 없이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 **공포는 무지에 기인한다.**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본능의 공포를 꺼내게 된다. 우리의 이슬람, 혹은 중동세계에 대한 태도가 그와 같다. 이슬람, 무슬림들은 우리에게 타자(他者)고 우리가 그 타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사실 우리가 이슬람과 중동을 흔히 혼용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그 세계에 무지한가를 알 수 있다) 이유로 공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공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 무슬림 인구는 세계적으로 15 억명에 달하며 세계 최대의 단일 종교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무지에 기인한 공포로 우리는 세계의 4 분의 1 쪽을 도려내고 있다. 우리가 그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공포를 해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좀 더 넓게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워서 정치, 역사, 사회, 문화,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중동지역, 그 문화권에 대해 정확한 이해해야 그 공포를 해소할 수 있다.

혹자는 반문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 세계에 살고 있고 중동과 이슬람의 소식을 매일 아침마다 뉴스로 전해 듣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충분히 다문화 사회라서 이슬람에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오만한 발상이라며 따질 수 있다.

정말 우리가 그 세계를 잘 아는지는 단편적인 지식을 몇 가지 묻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마 종교에 상관없이 성탄절은 12월 25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석가탄신일이 대충 4월에서 5월 즈음에 있고, 더러는 음력 4월 8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함마드 탄생일이나 승천일(기독교의 부활절에 해당되는 날)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슬람의 가장 큰 행사인 라마단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듣는 중동과 이슬람의 소식은 무엇일까? 왜 그런 소식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지에 의한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할까? 여기서 저자인 이희수 교수가 짚어내는 포인트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의 이슬람 이해에 가장 큰 방해요소이자 지금 우리의 공포를 강화해온 핵심 요소인 오리엔탈리즘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3. 오리엔탈리즘, 당신 눈 위의 색안경

역사는 항상 승자의 이야기를 기록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승자의 헤게모니는 스스로를 영구화한다. 지금 우리 세계는 서구와 기독교의 헤게모니에 지배되고 있다. 산업화를 통해 동양을

앞지른 서구는 역사의 물꼬를 그들을 향하게 돌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리적으로 동양에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는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지식과 가치관은 우리가 세계를 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줬다. **그리고 스스로 동양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중동과 이슬람 세계를 서양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게 되었다.**

오리엔탈리즘은 <아라비안 나이트>등에서 드러나는 서구가 동양을 봐온 색안경이었다. 술탄의 여자들이 살고 있는 하렘에 대한 환상, 일부다처제 등 남성의 성적판타지가 반영되어 중동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왜곡시켰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쇠퇴하고 서구의 제국주의가 진행되면서 오리엔탈리즘은 서구가 동양을 대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런 오리엔탈리즘을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앞선 문화로 서구에 우위를 갖고 있던 동양, 특히 서구와 가까이 접해있던 중동세계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패권에 의해 형성된 관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켜볼 필요가 있다.

이희수 교수가 책의 앞부분부터 지적하는 것이 중동지역의 패권다툼이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유대인들이 미국의 비호아래 4 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현재 중동갈등의 원죄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의 배타성은 팔레스타인 학살과 주변 아랍국과의 갈등을 낳았고, 스스로도 테러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여기에 미국이 중동지역의 석유 개발 등의 이권에 야욕을 드러내면서 중동지역은 계속해서 혼란 속에 머무르게 되었다.

오리엔탈리즘의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투영된다는 점이다. 책에서 지적하듯, 중동지역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색채를 가지며 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사우디 아라비아다. 문제는 미국이 중동지역의 갈등에 개입하며 드는 근거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국가'라는 점인데, 정작 자유민주주의 해방이 시급한 친미적인 사우디는 그대로 두고 미국의 이권에 방해가 되는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국가에만 그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다. 즉, '산업화와 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개한 수준을 담보하고 있는 중동지역에 서구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오리엔탈리즘의 논리는 사실 그들의 잇속 챙기기 논리에 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오리엔탈리즘을 깊이 받아들이게 된 것은 앞서 잠깐 언급했듯, 우리가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학문과 지식을 통해 발전했기 때문이다. 경영학만 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의 사례들을 대부분 다룬다. 심지어는 역사에서도 서구의 해석방법과 잣대를 가져와서 해석한다. 그리고 이런 학문적 편향들은 우리가 세계를 직시하고 우리의 이권을 찾는 것에 많은 방해요소가 된다.

그리고 세계를 편의대로 인식하는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해석하는, 그렇다고 자기 중심적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중동세계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희수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다가가고 사실을 찾으며 해석하는 것이 필요했다.**

4. 색안경을 벗기 위해

2014년 가을과 겨울을 터키와 중동지역에서 보냈다. 가을학기를 이스탄불의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보냈고, 관심 있던 정치적 이슈들에 다가가보려 노력했다. 또 현지인들과 친해지며 짧은 시간이나마 그들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려 노력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할 수 있었고, 중동의 문제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다. 내가 느낀 중동문제는 확실히 종교갈등이 아니라는 점이였다. 그들의 갈등은 이권과 정치권력의 갈등이었고, 그 양상이 언뜻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었다. 당시 IS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면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늘어갈 때였는데, 정작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그들에 대한 지지는 엇갈렸다. 터키와 같은 세속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큰 반대를 하고 있었고, 내가 만난 대다수의 무슬림들도 그들이 말하는 '지하드'(성전)보다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권력공백을 파고든 하나의 세력과 그 갈등으로 보고 있었다.

책에 보면 아랍사회의 전통 문화와 이슬람 문명을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는 논지가 보이는데 이를 확장하면, 중동지역의 갈등 양상도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로 각각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각각 갈등의 요인과 주체들을 살펴보면 갈등의 핵심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해왔던 갈등에 대한 오해(예를 들어 이-팔 갈등을 종교갈등으로 본다거나, 겉프만 명칭을 둘러싼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등)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갈등의 주체와 원인들을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난 시선에서 살펴보고, 그것을 해석하는데에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여 그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형성하고 주체적인 인식을 할 때 비로소 이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금도 이슬람은 격동한다.

이 책은 9.11 테러 10 주년을 맞아 출판되었다. 저자도 그 부분을 중심으로 미국의 패권관계와 중동의 이해를 설명하고 9.11 테러에 방점을 찍는다. 그리고 앞으로 이슬람세계와 중동지역의 민주화와 이슬람의 발전을 기대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슬람 세계는 격동에 처해져 있다. 저자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크게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IS의 득세와 그에 대한 주변국과 이해관계국의 혼란 상황이다.

여기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건국과정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 IS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건국과정이기 때문이다. 석유 등의 이권을 장악하고 그를 통해 경제력과 힘을 길렀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며 기존 세력을 몰아낸 그 과정은 현재의 IS와 매우 닮아있다. 그 후 사우디 아라비아 왕조는 친미노선을 선택하며 그들의 권력을 지켜냈는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IS는 어떤 방향으로 패권을 유지할지 지켜볼 부분이다.

비록 저자의 예측은 일부 빗나갔지만,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많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중동갈등의 핵심에 여전히 놓여져 있고, 미국의 대 중동노선의 변화가 중동세계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유효하다.

그 뿐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도 유효하다. 이슬람 세계에 대해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난 우리의 시선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고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 세계 전반에 대해 넓은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이 책은 21세기 경영을 이끌어갈 우리들에게 이슬람 세계 이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교양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책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도 독자가 온전한 이해와 합리적인 의심의 끈을 붙잡아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뒤늦게나마 이슬람 세계의 이해에서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나려는 것처럼 말이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중동의 모래 바람 속에서도 눈을 뜬 사람만이 그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에 그 노력은 의미있다



그림 1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직접촬영)



그림 1 이슬람 사원의 기도 모습 (직접촬영)



그림 3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직접촬영)